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 만족*

Workers' Leisure Satisfaction
on Them after Enforcement of 5-day Work Week System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박성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부

교수 이기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

Doctor Course : Pak, Sung You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Lee, Ki-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문헌 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se days, people have changed their attitude and understanding of the term leisur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in Korea, people's leisure activities have changed grea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leisure activities have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 week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way Koreans spend their leisure time. The conclusion and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follows: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increased people's leisure hours, but they were still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and their satisfaction from leisure activities was more influenced by other variables than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 본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 박성연 (sy.han.pak@gmail.com)

*** 교신저자 : 이기영 (leek@snu.ac.kr)

system. Among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from leisure, only those with high income and educational backgrounds were affected by the five-day work week. To conclude, there is a necessity for direction suggestions and political support to utilize leisure time positively.

Key Words : 여가 (leisure), 주5일 근무제 (5-day work week), 40시간 근무 (40 working hours per week), 여가활동 (leisure activity), 여가 시간 (leisure time), 여가만족 (satisfaction on leisure activity), 임금노동자 (wage workers), 노동시간 (working hours)

I. 서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적 부는 축적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노동 시간은 단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개인의 자유 시간은 확대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여가 생활 변화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여가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LG경제연구원(2000)에서는 여가의 절대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았고, 삼성경제연구소(2002)도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뉴트렌드로 주말여행 문화의 정착으로 인한 여행 시장의 확대와 레포츠 수요의 증가, 취미 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 및 자기계발과 관련된 여가 시장의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5일 근무제로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 활동이 증가되고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훈 2001, 2003; 류재숙, 2005) 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5일 근무제 이후 줄어든 근무 시간으로 인해 소득이 줄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부업 활동을

하게 되거나, 잡다한 집안일이 그 시간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문숙재 외, 2005).

실제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여가에 만족하는 비율이 2000년 31.6%에 비해 2004년에는 27.3%로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는 2002년부터 금융계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에도 최근 들어 이런 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강길현, 2003; 김기갑, 2003; 김성섭, 2004; 류재숙, 2005; 박재희, 2004; 손명준, 2004; 신화경, 2005; 이상일, 2004; 이한숙, 2005; 이훈, 2003). 대다수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을 비교한 것인데, 이는 대체로 주5일 근무 실시로 근로 시간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실제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는지의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 생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고용 상태, 고용안정성과 같은 근무 환경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표집의 어려움으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 자체가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주5일 근무 실시과 비실시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차(2004)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대단위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시 초기에 변화의 조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여가 생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예측이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영향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함으로써 여가 생활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연구

1. 주5일 근무제와 여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근무 시간 축소와 여가 시간 증가에 따른 여가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를 살펴보겠다.

먼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패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한규(2001)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문화, 레포츠, 예술, 건강 등 특정 이벤트와 연계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 관람은 물론 야외활동과 스포츠의 수요도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현기(2003)의 연구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 증가하며, 건강한 삶을 위해 스포츠 활동의 참여 및 야외레크리에이션의 증대, 자기개발형 평생 학습 여가 활동의 증가, 개성 중심의 체험, 참여 여가 활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특히 시간 소비형 여가가 확산되면서 여가 시간의 총량이 삶의 질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김성섭 외(2004)의 연구에서는 주5일제가 시행되면 여가 활동 유형이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를 많이 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 본 결과는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양성인(2002)의 연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스포츠 부문, 취미교양부문, 관람감상 부문, 관광행락부문, 놀이오락 부문의 여가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명준(2004)은 금융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활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활동 참여 정도는 높아졌으나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인(2002)의 스포츠 부문의 여가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집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표집 단위를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대표성을 확보하여 일반화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강길현(2003)의 연구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 참여 정도가 높아졌고, 가장 많이 늘어난 여가 활동은 스포츠와 관광 오락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5일제 실시 후 여가 활동 참여 정도에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50대, 학력수준에서는 고졸, 그리

<표 1>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 변화 선행 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 내용
예측 연구	이지평·오정훈·송태정(2000)	휴식 위주에서 취미, 자기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될 것이며, 엔터테인먼트, 문화·교양·사업 성장
	이한규 (2001)	문화, 레포츠, 예술, 건강 등 특정 이벤트와 연계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스포츠 관람 및 수요가 증가
	이훈(2001)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자기개발형 여가, 도심·자연 여가 스포츠 활동 증가 및 가족 중심 여가 활동 전환
	삼성경제연구소(2002)	가족 유대 강화, 휴식오락 선호, 체험형 소비 일반화, 학습 기회 증가, 복수직업 보유, 야외활동 강화, 매니아의 활발한 활동 기대
실증 연구	김현기(2003)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 증가, 스포츠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증대, 자기개발형 학습 여가 활동 증가, 개성 중심의 체험, 참여 여가 활동으로 전환, 시간 소비형 여가 확산
	양성인(200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스포츠 부문, 취미교양 부문, 관람감상 부문, 관광행락 부문, 놀이 오락 부문의 여가 활동 증가
	강길현(2003)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 여가 참여 정도가 높아졌음
	김기갑·감기용·김현일(2003)	주5일 근로자들이 주6일 근로자들보다 활동적이고, 특히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여가 활동 참여 빈도와 참여 지출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남
	손명준·최윤형(2004)	여가 활동을 스포츠, 취미 교양, 관람감상, 사교, 관광행락, 놀이오락으로 구분하였는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취미 교양 부문의 여가 활동의 차이가 두드러짐
	이상일·유현순(2004)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직장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유형은 스포츠 부문, 관람감상, 사교 부문 순으로 나타남
	박재희·정규엽(2004)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정적인 여가 활동에서 동적 활동으로 변화되었고, 여가 활동 범위 및 참여 빈도가 확대되었음
	노정구·강명주(2005)	주5일 근무제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생활, 문화생활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남
	신화경(2005)	주5일 근무제 비실시 집단의 여가 활동은 수동적이고 대체적인 여가 활동이 대부분이나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는 참여적 여가 활동의 특성을 보임

고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자의 여가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여가 행태는 차이가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경우 여가 참여 정도가 높아졌으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여가 만족도

본 절에서는 여가 만족도의 개념과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Campbell(1980)은 행동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한 것 또는 합리적으로 열망한 수준과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것이 적다면

만족 상태이고, 불일치하는 것이 많다면 불만족 상태라고 하였다. 즉 만족과 불만족은 절대적 감정이 아닌 상대적인 감정이다. Iso-Ahola(1981)는 여가 만족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또는 내재적으로 동기 유발된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활동에 대한 만족감’으로 표현하였으며, Dumazedier(1974)와 Neulinger(1974)등은 여가 만족이란 ‘특정 여가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및 욕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는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였다. Beard & Ragheb(1980)는 여가 만족을 ‘개인이 여가 활동과 선택에 참여한 결과로 형성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가 만족은 여가 경험의 중요한 결과이며(Knapp, 1976) 특정 여가 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일종의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무 환경 요인 그리고 여가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학력, 소득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① 성별

여가 행동에 있어 성별차이는 남녀 간의 성역할 및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가 제약이 크다. 실제로 2004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서도 남성의 여가 만족도는 28.6%인데 반해 여성의 여가 만족도는 26.1%로 여성의 여가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길현(2003)의 연구에서도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여성보다는 남성의 여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애(2005)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가 만족도가 높고, 여성이 여가 제약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여가 제약을 더 많이 받고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를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많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여가제약을 많이 받는 반면, 남성은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가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② 연령

연령에 따라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 참여가 다르며(이정연, 1997; Firestone 외, 1988) 이에 따라 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국민여가 활동참여실태조사(1995)에서도 여가 생활 만족도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송원익과 여인성(200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여가 제약을 많이 받고 40대 이상이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결혼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태준(2003)의 연구에서 결혼여부에 따라 여가 제약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혼이 미혼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컸는데, 이는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의 경우보다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김기범, 2004) 결혼여부 역시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④ 학력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민경애, 1985; 한경미, 1991) 여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익, 2004). 여가 만족도를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졸 집단에서 여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강길현, 2003) 나타났다. 송원익(2004)의 연구에서도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문겸(1993)의 연구에서도 학력은 여가 제약과도 관련이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 제약의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태준, 2003에서 재인용).

⑤ 소득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 참여의 만족이 높다는 것은 고학력의 도시근로자일수록 그만큼 주어진 여가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학력과 소득은 상호 정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의 여가 몰입과 여가 만족의 관계를 밝힌 김지영(2006)의 연구에서도 월소득이 클수록 여가 만족의 다양한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유가 여가 만족의 한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최성애(2005)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여가 만족도가 높았다.

2) 여가 관련 요인

여가 관련 요인으로는 여가 시간, 활동, 비용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① 여가 시간

여가관련 요인 중에서 시간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주된 요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부부의 여가 시간과 여가 비용 및 여가만족도를 연구한 이현아 외(1999)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여가만족도 영향 요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여가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도 여가 시간이 여가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정운 외(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가 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여가 시간은 특정 요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류재숙(2005)의 연구에서 평일 여가 시간과 일요일 여가 시간은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요일 여가 시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여가 활동

Ragheb & Griffith(1982)는 여가 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가 활동에 많이 참가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고, 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 여가 만족은 여가 활동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철(1996), 김정식(1996)등의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 참여가 여가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류재숙(2005)의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이 많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여가 활동량과 더불어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가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최성애(2004)의 연구에 의하면 수동적 여가 활동보다 능동적 여가 활동을 할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활동 유형과 관련하여 이성철(1996)은 스포츠 사회체육활동 경험에 따라 여가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고, 최원오

(2003)는 레저스포츠의 참가 정도가 여가 만족 및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발적 여가 활동에의 참여가 많을수록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여가 비용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여가 시간과 더불어 여가 비용을 투입요소로 파악하여 여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가 비용이 높을수록 여가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는 여가 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순미 등(1996)의 연구에서도 여가비의 지출 증가가 여가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근무 관련 요인

근무 관련 요인으로는 주5일 근무제, 근로 시간, 근무 형태, 고용 안정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① 주5일 근무제

김기갑(2003)의 연구에서 주5일 근무자가 주6일 근무자보다 높은 여가만족도를 보였으며, 여가만족을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교육적, 휴식적 만족의 6가지 하위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류재숙(2005)의 연구에서도 주6일 근무, 격주 근무, 주5일 근무에 따라 여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집단의 여가 만족도 평균이 주6일 근무 집단의 여가 만족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이후 줄어든 근무 시간으로 인해 소득이 줄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부업 활동을 하게 되거나, 잡다

한 집안일이 그 시간 공백을 대체할 수 있기(문숙재 외, 2005)때문에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뿐만 아니라 성별, 소득,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근무 관련 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근로 시간

최균호(2005)의 폴크스바겐사의 주28.8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 생활 변화 연구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여가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므로, 주5일 근무 여부 자체가 근로 시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는지의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와 더불어 근로 시간의 영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③ 근무 형태

근무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태준(2003)은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여가 제약 연구에서 정규직이 계약직 집단에 비해서 내재적 제약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제약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 만족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근무 형태도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④ 고용 안정성

정진철(2004)의 연구에 의하여 1~2년 이내에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조직몰입도와 여가 만족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조직몰입도와 여가 활동이 관련이 있다는 이병익(2001)의 연구를 감안할 때 고용 안정성이 여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직장인의 여가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1) 여가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여가 만족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 근무 변수, 여가 변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변수 정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득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무 관련 변수는 주5일 근무 여부, 연월차 유무, 근무 시간, 근로 형태, 고용 안정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여가 관련 변수로는 여가 시간과 여가 비용으로 보았으며, 여가 시간은 요일과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요일은 다시 평일 여가 시간, 토요일 여가 시간, 일요일 여가 시간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 영역은 자기계발활동시간, 교제활동시간, 여행/운동/오락활동시간, 종교활동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7차(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원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 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 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개인용과 가구용으로 구분되며 해마다 특정 주제를 좀 더 심도 깊게 질문하는 부가 조사를 실시하는데, 7차 년도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이로 인한 생활시간 사용의 변화 및 여가 시간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여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4,762가구, 총 11,661명의 가구원 중 임금노동자 4,257명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척도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여가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 5점, 만족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만족하지 않는다 2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결혼 여부는 결혼한 사람을 1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은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2년제 전문대학교졸, 4년제 대학졸, 석사 졸, 박사 졸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이를 최종 학력에 근거하여 교육 연수로 바꾸어 연속 변수로 처리하였다.

근무 관련 변수 중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용안정성은 고용불안 없이 현재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7차 노동 패널 조사에서는 하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모두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중 여가 시간은 학업 및 자기 계발 활동, 교제 활동, 여가 활동, 종교 활동, 참여 및 봉사 활동 시간을 모두 합쳐서 산출하였다.

여가 비용은 여행/관광/나들이, 운동/스포츠, 오락/게임, 사교/모임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 t-Test,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 대상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이용된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근무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그 영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대상 근로자 전체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전체		주5일근무제실시		주5일 근무제 비실시	
		4,257명	100(%)	476명	13.8(%)	2,966명	86.2(%)
성별	남자	2567	(60.3)	306	(64.3)	1755	(59.2)
	여자	1690	(39.7)	170	(35.7)	1211	(40.8)
연령	20대	1041	(24.5)	110	(23.1)	537	(18.1)
	30대	1344	(31.6)	186	(39.1)	969	(32.7)
	40대	1074	(25.2)	111	(23.3)	836	(28.2)
	50대 이상	798	(18.7)	69	(14.5)	624	(21.0)
결혼상태	비기혼	1436	(33.7)	135	(28.4)	811	(27.3)
	기혼	2821	(66.3)	341	(71.6)	2155	(72.7)
교육 수준	중졸이하	809	(19.0)	48	(10.1)	664	(22.4)
	고졸	1582	(37.2)	144	(30.3)	1155	(39.0)
	전대문대졸	605	(14.2)	69	(14.5)	358	(12.1)
	대졸이상	1259	(29.6)	214	(45.1)	788	(26.6)
연간소득	999만원 이하	1008	(26.1)	52	(11.8)	776	(28.7)
	1000~1999만원	1374	(35.6)	118	(26.7)	945	(35.0)
	2000~3999만원	1230	(31.9)	204	(46.2)	834	(30.9)
	4000만원 이상	246	(6.4)	68	(15.4)	148	(5.5)
근무 형태	비정규직	1167	(27.4)	64	(13.4)	888	(29.9)
	정규직	3090	(72.6)	412	(86.6)	2078	(70.1)
고용 안정성	불안	202	(4.7)	12	(2.5)	152	(5.1)
	안정	4055	(95.3)	464	(97.5)	2814	(94.9)
전체 종업원 수	~50인 미만	1827	(58.1)	123	(34.5)	1357	(62.3)
	50~99인	285	(9.1)	26	(7.3)	206	(9.5)
	100~299인	303	(9.6)	36	(10.1)	201	(9.2)
	300~999인	229	(7.3)	40	(11.2)	140	(6.4)
	1000인 이상	498	(15.8)	132	(37.0)	273	(12.5)

시 집단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임금 노동자 4,257명 중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임금노동자는 전체의 13.8%에 해당하는 476명이었으며, 비실시 집단의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86.2%에 해당하는 2,966명이었다. 2004년 조사 당시에는 주5일 근무제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자가 2,567명으로 60.3%, 여자가 1,960명으로 39.7%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실시 집단의 남자 비율이 64.3%로 비실시 집단의 59.2%보다 더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31.6%(1344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5.2%(1074명), 30대 미만인 10대와 20대가 24.5%(1041명)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18.7%(798명)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보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에서는 20대, 30대의 비중이 비실시 집단보다 높고, 비실시 집단에서는 40대와 50대 이상 비중이 실시 집단보다 더 높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6.3%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별, 미혼 등 비결혼 상태가 33.7%의 분포를 보였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비기혼 비율이 28.4%로 비실시 집단의 27.3%보다 약간 높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는데 고졸이 37.4%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이 29.6%, 중졸 이하가 19.0%, 전문대졸이 14.2% 순이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경우 대졸자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비실시 집단의 경우 고졸자 비율이 39%로 가장 높아서 집단간 교육 수준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개인의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000~2000만원 미만

이 35.5%로 가장 많고, 1000만원 미만이 26%, 2000~3000만원 미만이 21.8%, 3000~4000만원 미만이 9.9%, 4000~5000만원 미만이 3.8%, 5000만원 이상이 3.0% 순이었다. 이를 다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실시 집단의 경우 2000~3000만원 미만이 46.2%로 가장 높은 반면, 비실시 집단의 경우 1000~2000만원이 35%로 가장 높아 집단 간 소득 수준 분포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00만원 이상 고소득은 주5일 근무 집단의 경우 비실시 집단보다 3배나 높아 소득 분포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2004년 당시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규직 비율은 72.6%로 높은 편이었으며, 임금 근로자의 95.3%는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비실시 집단 보다 정규직 비율도 86.6%로 더 높고, 고용 안정성도 97.5%로 더 높았다.

전체 종업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는 50인 미만이 58.1%로 가장 높았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경우 1000인 이상이 37%로 가장 높았고, 비실시 집단의 경우 50인 이하가 62.3%로 가장 높았다. 이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가 시행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이용된 조사 대상자들의 여가 시간, 근무 시간, 여가 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여가 시간의 차이는 토요일 여가 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여가 시간의 변화가 많아진 결과로 볼 수

〈표 3〉 주5일 근무 여부에 따른 여가 시간과 근무 시간차이

(단위: 시간)

구분	항목	주5일 근무제 실시 (n=476)		주5일 근무제 비실시 (n=2964)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여가 시간	한 주	42.2	16.5	36.0	15.7	-9.075***
	평일	4.4	1.9	4.3	2.2	-2.126*
	토요일	9.0	3.7	5.8	3.4	-17.548***
	일요일	11.0	3.1	9.0	4.3	-12.097***
근무 시간	한주	51.6	11.0	59.7	18.1	9.556***
	평일	9.6	1.9	9.9	2.7	1.982*
	토요일	3.3	3.9	7.6	4.1	22.364***
	일요일	0.2	1.4	2.8	4.9	11.381***

*** P < 0.001 ** P < 0.01 * P<0.05

있다. 또한 이훈 외(2003)의 연구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 시간은 토요일 여가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비실시 집단에서의 주당 근무 시간은 59.7시간으로 법정 근무 시간인 40시간 보다 19.7시간이나 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에서 조차 근무 시간은 51.6시간으로 법정 근무 시간인 40시간 보다 11.7시간이나 더 근무 하고 있었다.

<표 4>에서는 주5일 근무 여부에 따른 활동별 여가 시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평일에는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 비중이 늘어났고, 토요일에는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과 교제 활동

〈표 4〉 주5일 근무 여부에 따른 활동별 여가 시간 차이

(단위: 시간)

요일	항목	주5일 근무제 실시			주5일 근무제 비실시			t
		n	평균	%	n	평균	%	
한 주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	476	4.7	10.1%	2,949	3.3	7.0%	-4.100***
	교제 활동	476	9.4	22.1%	2,949	8.1	21.2%	-1.047
	여행/운동/오락 활동	476	27.0	64.9%	2,949	23.5	68.8%	-3.302**
	종교 활동	476	1.1	2.7%	2,949	1.0	2.7%	-0.040
	참여 및 봉사 활동	476	0.1	0.1%	2,949	0.2	0.4%	2.697**
평일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	471	0.5	11.4%	2,911	0.4	9.5%	-3.588***
	교제활동	471	0.8	18.2%	2,911	0.8	19.0%	0.628
	여행/운동/오락 활동	471	3.0	68.2%	2,911	2.9	69.0%	1.866
	종교 활동	471	0.1	2.3%	2,911	0.1	2.4%	-0.140
	참여 및 봉사 활동	471	0.0	0.0%	2,911	0.0	0.0%	1.613
토요일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	476	1.0	10.1%	2,934	0.5	6.5%	-4.301
	교제 활동	476	2.2	23.5%	2,934	1.3	20.4%	-2.695**
	여행/운동/오락 활동	476	5.6	65.1%	2,934	3.8	71.5%	4.803
	종교 활동	476	0.1	1.3%	2,934	0.1	1.2%	-0.179
	참여 및 봉사 활동	476	0.0	0.0%	2,934	0.0	0.3%	3.274**
일요일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	475	1.0	8.5%	2,932	0.7	6.3%	-2.807**
	교제 활동	475	2.9	26.6%	2,932	2.5	25.9%	-0.675
	여행/운동/오락 활동	475	6.3	58.6%	2,932	5.2	61.6%	2.357*
	종교 활동	475	0.7	6.2%	2,932	0.6	5.9%	-0.350
	참여 및 봉사 활동	475	0.0	0.1%	2,932	0.0	0.2%	0.785

*** P < 0.001 ** P < 0.01 * P<0.05

비중이 늘어났고, 일요일에는 자기계발 활동 비중과 교제 활동, 종교 활동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여가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직장인의 여가 만족도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94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다시 주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집단 별로 비교해보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여가 만족도는 3.13, 비실시 집단은 2.89로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유의했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여가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5>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 만족도 차이

	전체	주5일 근무제 실시	주5일 근무제 비실시	t
	n=4431	n=476	n=2,955	
여가 만족도 평균	2.94	3.13	2.89	6.648***

*** P < 0.001 ** P < 0.01 * P < 0.05

2.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여가 만족도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조건과 개인이 처한 여가 시간이나 비용 같은 여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여가는 시간의 과다에 따라, 또는 참여하는 활동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가 시간을 변수로 포함한 회귀모형과 활동 영역별 시간을 변수로

포함한 회귀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회귀 분석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여가 시간과 같이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자기계발 활동, 교제 활동, 여행/운동/오락 활동, 종교 활동, 참여 및 봉사 활동과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영향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성별, 나이, 결혼상태, 학력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연령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 실제 근무 시간, 고용 형태, 고용안정성, 연월차 유무 등의 근무관련 변수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여가 시간과 여가 비용 등의 여가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별도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회귀 모형의 전체 직장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3%정도이다. 유의한 변수는 소득, 성별, 나이, 학력, 근로 형태, 고용 안정성, 일요일 여가 시간이었다.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영향력의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소득($\beta=.154$)이 높을수록, 학력($\beta=.137$)이 높을수록, 일요일 여가 시간($\beta=.100$)이 많을수록, 정규직($\beta=.070$)일수록, 나이($\beta=.068$)가 많을수록, 고용 안정성($\beta=.059$)이 있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더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았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는 여가 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에서 살펴보듯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여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전체 여가 만족도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는 여가 만족도에 영향 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근로 형태나 고용안정성 근무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근무 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고, 또한 조사 시점이 2004년임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주5일 근무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회귀 모형 설명력에 있어 주5일 근무집단의 설명력은 12%였고, 주5일 근무제 비실시 집단의 설명력은 11%로 거의 유사하였다.

우선 주5일 근무제 실시 직장인의 경우 소득과 학력만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영향력의 크기로 살펴보면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득($\beta = .224$)이 높을수록, 학력($\beta = .151$)이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았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경우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소득과 학력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주5일 근무 실시집단의 시간 제약은 어느 정도 완화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반면에 주5일 근무 비실시자의 경우 소득, 학력, 일요일 여가 시간, 근로 형태, 토요일 여가 시간, 나이, 고용 안정성, 성별, 근로 시

〈표 6〉 여가 시간별 여가 만족도 회귀 분석 결과

	전체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			주5일 근무제 비실시 집단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779		11.752	1.729		3.729	1.810		11.182
소득	0.000	0.154***	6.556	0.000	0.224***	3.749	0.000	0.137***	5.405
성별(1=여자)	0.079	0.052**	2.499	0.027	0.017	0.333	0.088	0.058*	2.549
나이	0.005	0.068**	3.086	0.001	0.016	0.275	0.005	0.072**	2.968
결혼상태(1=결혼)	0.004	0.002	0.103	0.070	0.041	0.754	-0.010	-0.006	-0.280
학력	0.024	0.137***	5.716	0.029	0.151**	2.730	0.023	0.130***	4.902
근로형태(1=정규직)	0.119	0.070**	3.451	0.009	0.004	0.084	0.136	0.082***	3.719
주5일여부(1=실시)	0.063	0.030	1.509	-	-	-	-	-	-
고용안정성(1=있음)	0.210	0.059**	3.258	0.232	0.048	1.027	0.209	0.062**	3.113
연월차유무(1=있음)	0.030	0.018	0.900	0.017	0.011	0.222	0.027	0.015	0.726
근로시간(한주)	-0.002	-0.045	-1.885	0.001	0.021	0.351	-0.002	-0.053*	-2.025
평일 여가 시간	0.001	0.003	0.121	0.039	0.105	1.747	-0.007	-0.019	-0.708
토요일여가 시간	0.010	0.047	1.953	-0.011	-0.053	-0.865	0.016	0.073**	2.836
일요일여가 시간	0.018	0.100***	4.644	0.018	0.077	1.218	0.018	0.104***	4.455
여가경비	0.000	0.020	1.110	0.000	0.085	1.803	0.000	0.003	0.158
수정된 R2	0.127			0.120			0.110		
F	29.545***			5.420***			23.074***		

*** P < 0.001 ** P < 0.01 * P < 0.05

간이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영향력의 크기로 살펴보면 주5일 비일시 근무자의 경우 소득($\beta=.137$)이 높을수록, 학력($\beta=.130$)이 높을수록, 일요일 여가 시간($\beta=.104$)이 많을수록, 정규직($\beta=.062$)일수록, 토요일 여가 시간($\beta=.073$)이 많을수록, 나이($\beta=.072$)가 많을수록, 고용 안정성($\beta=.062$)이 있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더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근무시간($\beta=-.053$)은 적을수록 더 높은 여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 비일시 집단의 경우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대립과 연장 관계

(Wilensky 1960)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5일제 비일시 집단의 경우 여가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말 여가 시간 확보뿐만 근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근무관련 변수, 자기개발 활동, 교제 활동, 여행/운동/오락 활동, 종교 활동, 참여 및 봉사 활동과 같이 여가 활동 시간과 여가 비용 등의 여가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2%로, 이 중 유의한 변수는 소득, 성별, 나이, 학력, 근로 형

(표 7) 여가 활동별 여가 만족도 회귀 분석 결과

	전체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			주5일 근무제 비일시 집단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781		11.672	1.640		3.515	1.812		11.102
소득	0.000	0.160***	6.785	0.000	0.207**	3.462	0.000	0.143***	5.648
성별(1=여자)	0.079	0.051*	2.471	0.011	0.007	0.138	0.088	0.058*	2.536
나이	0.004	0.063**	2.826	0.002	0.026	0.452	0.004	0.065**	2.679
결혼상태(1=결혼)	-0.003	-0.001	-0.074	0.084	0.050	0.910	-0.016	-0.009	-0.436
학력	0.026	0.144***	5.891	0.031	0.161**	2.884	0.025	0.140***	5.185
근로형태(1=정규직)	0.127	0.074***	3.663	0.010	0.004	0.088	0.144	0.087***	3.916
주5일여부(1=일시)	0.090	0.043*	2.208						
고용안정성(1=있음)	0.208	0.059**	3.217	0.233	0.048	1.035	0.206	0.061**	3.049
연월차유무(1=있음)	0.035	0.021	1.072	0.004	0.003	0.054	0.038	0.022	1.041
근로시간(한주)	-0.002	-0.035	-1.475	0.002	0.037	0.673	-0.002	-0.045	-1.712
여가 경비	0.000	0.024	1.305	0.000	0.078	1.662	0.000	0.012	0.608
자기개발활동	0.004	0.040*	1.985	0.005	0.050	0.990	0.004	0.041	1.806
교제활동	0.004	0.042*	2.059	0.013	0.143**	2.723	0.002	0.027	1.215
여행/운동/오락활동	0.006	0.097***	4.458	0.005	0.091	1.554	0.007	0.103***	4.360
종교활동	0.006	0.025	1.342	-0.001	-0.005	-0.108	0.008	0.034	1.624
참여및봉사활동	0.009	0.015	0.840	0.063	0.054	1.153	0.006	0.012	0.600
수정된 R2	0.121			0.122			0.102		
F	24.633***			4.902***			18.526***		

*** P < 0.001 ** P < 0.01 * P < 0.05

때, 주5일 근무여부, 고용 안정성, 자기계발 활동, 교제 활동, 여행/운동/오락 활동이었다.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영향력의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소득($\beta=.160$)이 높을수록, 학력($\beta=.144$)이 높을수록, 여행/운동/오락 시간($\beta=.097$)이 많을수록, 정규직($\beta=.074$)일수록, 나이($\beta=.063$)가 많을수록, 고용 안정성($\beta=.059$)이 있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beta=.051$), 교제활동 시간($\beta=.042$)이 많을수록, 자기계발 활동 시간($\beta=.040$)이 많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더 높았다.

특히 여행/운동/오락 시간이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여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사회체육 활동 경험에 따라 여가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고 밝힌 이성철(1996)과 최원오(2003)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계발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계발적 활동이 많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자기계발활동은 여가 만족도에 유의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높지 않았다.

이를 다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차이가 있었다. 각회귀 모형 설명력은 각각 12%와 10%였다.

우선 주5일 근무제 실시 직장인의 경우 소득, 학력과 교제 활동 시간만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영향력의 크기로 살펴보면 소득($\beta=.207$)이 높을수록, 학력($\beta=.161$)이 높을수록, 교제활동시간($\beta=.143$)이 많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아졌다.

반면에 주5일 근무제 비실시 근무자의 경우 소득, 성별, 나이, 학력, 근로형태, 고용안정성, 여행/운동/오락 활동이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여가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다시 영향력의 크기로 살펴보면 소득($\beta=.143$)이 높을수록, 학력($\beta=.140$)이 높을수록, 여행/운동/오락 활동 시간($\beta=.103$)이 많을수록, 정규직($\beta=.087$)일수록, 나이($\beta=.065$)가 많을수록, 고용 안정성($\beta=.061$)이 있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더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beta=.058$) 더 높은 여가 만족도를 보였다.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자기계발활동, 교제 활동, 여행/운동/오락 활동이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다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실시 집단의 경우 교제 활동이, 비실시 집단의 경우 여행/운동/오락 활동이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주5일 실시 집단의 경우 교제 활동을 늘리는 것, 비실시 집단은 여행/운동/오락 활동을 늘리는 것이 여가 만족도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4>의 한 주간 여가 활동 시간에서 보듯이 주5일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진 활동은 자기계발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5일 근무 실시로 자기계발활동은 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적자본개발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 활동 및 여가 만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간 비교를 했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주5

일 근무제 실시 여부와 더불어 실제 노동 시간이나 고용 안정성등과 같은 근무 관련 변수와 여가 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실제 노동 시간을 살펴 본 것은 아직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확산되지도 않았고 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선불리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증 분석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5일제 실시 집단의 여가 시간은 42.2시간으로 비실시 집단의 36.0시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근무 시간은 주5일 근무 집단에서조차 법정 근무 시간보다 11.6시간이나 더 많았다. 실제로 여가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주5일 근무 여부보다는 다른 변수들이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마치 여가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실제 주40시간 노동을 제대로 실현하고 이를 통해 여가 만족도를 높이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관련해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은 소득과 학력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비실시 집단은 근로형태나 고용안정성, 근로 시간과 같은 근무 변수와 토요일 일요일 여가 시간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과 여가의 관계가 독립적이거나 혹은 분리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5일 근무 집단의 경우 소득과 학력이 낮은 집

단을 대상으로 여가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주5일제 비실시 집단의 경우 여가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여가 시간 확보와 더불어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활동 변수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집단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주5일 근무제 비실시 집단에서는 여행/운동/오락 활동 시간을 늘임으로써 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에서는 교제 활동 시간을 늘임으로써 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노동 시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정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변화로 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스포츠/오락 뿐만아니와 참여형 활동과 자기계발과 같은 능동형 여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양적 변화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기계발과 같은 능동형 여가가 여가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가의 질적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여가 생활은 현대인 생활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여가 활동 및 여가 생활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여가 활동, 여가 시간, 여가 동행 여부, 여가 만족도 등 전반적인 여가 생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가운데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기갑, 김기용, 김현일(2003). 주5일제 근무자들과 주6일제 근무자들의 여가활동 실태 및 여가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회지 25, 49-68.
- 2) 강길현(2003).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 활용과 여가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839-849.
- 3) 강수돌(2001). 노동중독 사회와 주5일 근무제. 문화과학 28.
- 4)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서울 : 백산출판사.
- 6) 김광득(2003). 21세기 여가와 현대 사회. 서울 : 백산 출판사.
- 7) 김기범, 이상덕, 임영삼(2004).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여성들의 여가활용 및 여가 제약에 관한 연구 - 은행원을 중심으로 15(3), 745-754.
- 8) 김성섭, 전해진, 황지영(2004). 주5일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여가 및 관광활동의 변화 추정. 호텔경영학연구 13(2), 221-237.
- 9) 김순미, 홍성희(1996). 여가비 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4(3), 121-136.
- 10) 김외숙(1991).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 활동 참여와 여가 장애.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11) 김오중(1994). 여가 개념에 대하여. 여가 레크레이션 연구 11(1), 3-11.
- 12) 김정운, 이누미야(2003). 여가 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여가학연구 1(1), 41-56.
- 13) 김지영, 이철원, 한우진(2006). 도시 근로자들의 여가 몰입과 여가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5), 61-71.
- 14) 김현기(2003).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여가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5, 105-128.
- 15) 노용구(2006). 여가학. 서울 : 대경북스.
- 16) 노정구, 강명주(2005). 주5일 근무제는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가?. 대한경영학회지 18(4), 1529-1552.
- 17) 류재숙, 박연옥, 이승곤(200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 활동 및 여가 만족. 관광연구저널 19(1), 31-47.
- 18) 문숙재 외(2005). 여가 문화와 가족. 서울 : 신정출판사.
- 19) 박수정(2004). 여가학 개론. 인천 : 인하대학교 출판부.
- 20)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 조건.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11.
- 21) 삼성경제연구소(2002). 2002년 Trend 10 국내편 - 주5일제 도입과 여가 문화 확산. CEO Information 329, 19.
- 22) 손명준, 최윤희(2004). 주5일 근무제가 직장인의 여가 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966-976.
- 23) 송원익, 여인성(2004). 대도시 근로자의 여가제약 행태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4), 685-697.
- 24) 신화경(2005). 지역사회 여가 시설 개발을 위한 주5일 근무자들의 여가 행태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81-190.
- 25) 양성인(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근로자들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엘지경제연구소(2000).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서의 주5일 근무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 27) 이병익, 김종필, 노동연(2001). 고등학교 교사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 424-439.
 - 28) 이상일, 유현순(2004). 주5일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7, 153-168.
 - 29)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0) 이정연, 심미영, 김영숙(1997). 여가생활 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 여가생활 참여도, 여가 시간, 여가 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87-305.
 - 31) 이현아, 이기영, 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 시간과 여가 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32) 이한규(2001). 주5일제 근무의 실시와 생활체육의 전망. 한국관광정책.
 - 33) 이훈(2001). 주5일 근무제가 레저라이프 스타일과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레저론적 분석. 관광연구논총 13, 31-57.
 - 34) 이훈, 정철, 정란수(2003). 인터넷 조사방법을 활용한 주5일 근무제가 직장인 여가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7(1), 63-83.
 - 35) 정진철, 한주희(2004). 성과보상 연계성의 종업원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용안정성의 역할. 한일경상학회 28, 109-136.
 - 36) 전태준, 이철원(2003).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근무 조건이 여가 제약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4, 87-99.
 - 37) 최성애, 김경식(2004). 직장인의 여가 활동 유형과 여가 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1171-1180.
 - 38) 최성애, 박종화, 김영아, 김부일(2005). 도시직장인의 여가 활동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16(4), 225-236.
 - 39) 최원오(2003). 직장인의 레저스포츠 참여와 여가만족 및 자아실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2), 245-254.
 - 40) 최호균(2005). 독일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및 여가 생활의 변화, 독일어문학 30, 387-407.
 - 41) 홍성희(1996). 노인의 여가 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6(1), 107-123.
 - 42) Beard, J.G & Ragheb, M.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 43) Campbell, A.(1980).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 44) Dumazedier, J.(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 Elsevier.
 - 45) Iso-Ahola, S.E.(1981).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A : Wm.C. Brown.
 - 46) Knapp, M.(1976).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596-604.
 - 47) Neulinger, F.(1974). The psychology structure of leisure :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접수일 : 2007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6일